

OD4) 울릉도·독도 특산식물과 일본 제국주의

임은영, 최병기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1. 서론

울릉도와 독도는 신생대 제3기에서 4기에 형성된 해양화산섬이다. 울릉도는 중앙에 위치한 성인봉(984 m)으로부터 해안으로 대부분의 지형이 급경사로 형성되어 있으며, 한국에서 고유한 서식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로 크게 나뉘며, 여러 바위섬이 주변으로 산재해 있다. 두 섬 집단이 섬 형성 이후 한번도 육지와 연결되지 않으므로 인해 울릉도와 독도는 동북아시아에서 매우 독특한 생물 서식환경을 형성하는데 이바지 하였으며, 섬 크기에 비해 높은 특산종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 특산종 대부분의 발견과 학명 부여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식물발견과 명명 이후 한 세기가 흘러가는 동안 이들 학자들이 어떠한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였는지, 또한 이들의 행위가 현재에 이르러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울릉도와 독도는 1912년 岡本에 의해 森林狀況 및 樹木利用法 연구가 최초로 수행된 이후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이후 石戸, 中井, 吉岡, 森, 上田 山本, 植木 등의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특히 일본 대표적인 식물 대학자인 中井에 의해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울릉도와 독도에 서식하는 특산식물의 분포 특성과 함께 이들을 발견한 일본학자들의 연구를 확인하고, 각 사안들이 가지는 의미와 현재의 관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울릉도 특산식물은 섬노루귀, 섬단풍나무, 섬현호색, 섬자리공, 울릉장구채, 섬피나무, 등 30여종에 이른다. 이들 중 가운데 *takesima*를 종소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종은 선포아풀, 섬남성, 섬초롱꽃, 섬현삼, 섬광대수염, 섬바디 등 14분류군에 이른다. 학명을 부여한 사람은 모두 일본인이며, 이들은 분명한 식민사관의 의도를 가지고 학명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이들 식물보고서의 제목 대부분이 울릉도를 명기하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선 또는 울릉도에 대한 인식을 가지지 않은 채 종 명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시대 영토 분쟁 문제로 국제법에서 우의를 가지고자 하는 독도를 지칭하는 명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된 *takesima*를 가진 특산종 중 섬남성, 섬벚나무, 섬단풍나무, 섬꼬리풀 등의 식물은 최소한 독도에 현재 분포하고 있지 않으며, 이들의 조사 시에도 발견될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과거 여러 행적을 바탕으로 독도의 영토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제국주의 사상과 학문적 욕구 아래 이루어졌던 신종 식물의 발견과 기록 연구는 독도가 *takesima*이기 어려우며, 오히려, 일본은 독도를 *takesima*로 인식하지 못하고 급작스러운 사육을 위한 작위적 활동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는 점이 드러난 다고도 볼 수 있다. 식물의 학명은 명명 이후 영속성을 지닌다. 식물명명규약에 의해 결정된 이들 이름을 바꾸는 것은 학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로인해 국제생물다양성보존조약이나 CITES 등 다양한 국제법에서 이들 종은 영토와 함께 국가 간 소유권에 있어서 많은 분쟁요소가 될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은 이들 종을 일본과의 공통종으로 고려할 수도 있으며, 특별한 연구에서 이들 종에 대한 식물 자원 가치가 확인된다면, 이는 또 다른 생물주권의 분쟁거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영토의 문제와 함께 이들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에 봉착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들 성실했던 일본식물학자의 식물명명이 현재의 일본에게는 감추고 싶은 과거로 인식될 것이다.

4. 참고문헌

- 이정, 2013, 식민지 조선의 식물연구(1910-1945),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Nakai, T., 1919, Report on the vegetation of the island Dagelet Island, Korea.